

문제 1

1. 완벽한 답안입니다. 하지만 하나 아쉬운 점을 든다면 세 제시문의 주체가 달라지는 이유는 제시문마다 공공성의 개념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제시문에서도 공공성의 개념을 서로 다르게 표현했구요, 따라서 성격, 주체는 사실상 같은의미로 중복서술적 느낌이 나므로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공공성에 대한 비교를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문제 2

1. 이문제는 기본적인 3자논평 문제죠? 그럼 하나의 제시문을 택하시고, 남은 두 제시문이 왜 해결방안이 되지 못하는지 서술해주시면 됩니다.

2. “국가는 법과 강제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기능을 하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과는 구분되는 공적의 영역에 있는 주체이다. 말로는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을 배제하기 위해 강제력을 가진다고 한다. 하지만 국가도 하나의 이익을 취하는 집단으로서 국민들의 이익을 저해하고 국가만의 이익을 생각하여 개인이 알지 못하게 국민들을 이용하는 악덕을 저지를 수도 있고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도 이를 합구할 수도 있다. 극단적인 예로 박종철 고문 사건을 들 수 있다. 비록 의사의 폭로에 의해 사회에 공개됐지만 국민의 안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학생을 고문하고 이른 숨기려했다. 이외에도 국가가 숨기려는 시도를 하는 한 알려지지 않은 부정이 분명 있을 것이다.” 제시문 내용 불일치입니다. 제시문에서 국가는 국민들의 권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국민들의 반하는 내용이 들어가므로 완벽한 오답이며, 박종철 고문 사건과 같은 현대사적인 예시는 가급적이면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3. (나)대응은 좋으나, 구체적으로 공공장이나 신문 집회등과 같은 예시를 확실하게 들어주면 더 좋은 서술이 될 것입니다.

문제 3

1. 이 문제는 2014 연세대학교 사회계열과 동일한 문제이니, 나중에 참고해서 풀어보세요.

2. “(ㄹ)의 방식은 최대 다수, 최대 이익의 목표를 둔다는 점에서 (ㄷ)와 비슷하지만 강제성이 부족하다.” 아쉬운 근거서술입니다. (다)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강제성의 부족이 아닌 공리주의에 따르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시킬 것이므로 (라)에서 발생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 “또한 별목량을 나누고 감시하는 과정에서 (ㄱ)의 국가를 이용하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생계와 직결된 개인들이 직접 참여할 때보다 철저함에 있어 미흡할 수 있다.” 이 또한 부족한 서술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주셔야됩니다.

4. “그리고 라에서 제시된 행정적 절차도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의 발달로 개인들이 사회를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경향이 높아진 것 같이 주민들의 긴밀한 협조가 원활히 이뤄진다면 어느 정도 강제성을 가지고 국가의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인터넷의 발달은 제시문에서 제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의미가 없는 외부적 대응입니다.

5. 제시문 (나)에서 대응하셨으면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 공론장, 잡지, 신문, 집회등의 예시를 (라)에 적용했어야 하는데 이 또한 부족합니다.

6. 전체적으로 방향성은 맞으나 근거 서술부분에서 타당하지 못하여, 논리성이 떨어지는 답안입니다. 답이 맞더라도 왜? 이게 정말 맞나? 라는 의문을 들게끔 합니다.